

7. 기뻐하지 않는
진사시험
합격(28세)



(조선시대 과거장 풍경)

28세 되던 해에 한양으로 올라가 진사시험을 치렀다.





볼 필요 없으니 빨리 오기나 해라.

옛 왜유?



주인님이 시험을 잘못봤나?



성문을 나와 한강나루에 가까워 지는데

어이, 거기 되게 맞지?

앗 누가 부르는데요?



아이고 이사람, 걸음이 왜 그리 빨라?



자네가 이등으로 합격했어!

정말인가?



진짜지. 자네 기쁘지 아니한가?

글썸...

이야! 주인님 최고!

